

재미한국학교協, 자체개발 초등용 한국어 문제집 발간

기사입력 2016/07/06 09:52 송고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최미영)는 주말 한국학교 실정에 맞는 초등용 평가 교재인 '표준평가문항집'을 최근 자체개발해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NAKS 소속 6명의 개발위원과 3명의 평가위원이 2년간 펴낸 이 문항집은 한국 교육부가 발행한 '맞춤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그동안 NAKS 소속 학교는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II 한국의 모의고사와 한국 교육부가 편찬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각 학교가 개발한 시험 등의 평가 도구를 사용해 왔다.



최미영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는 대상 학생이 미국 정규학교 7학년 이상이고, TOPIK은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주말 한국학교에 다니는 NAKS 소속 학생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고 문제집 발간 배경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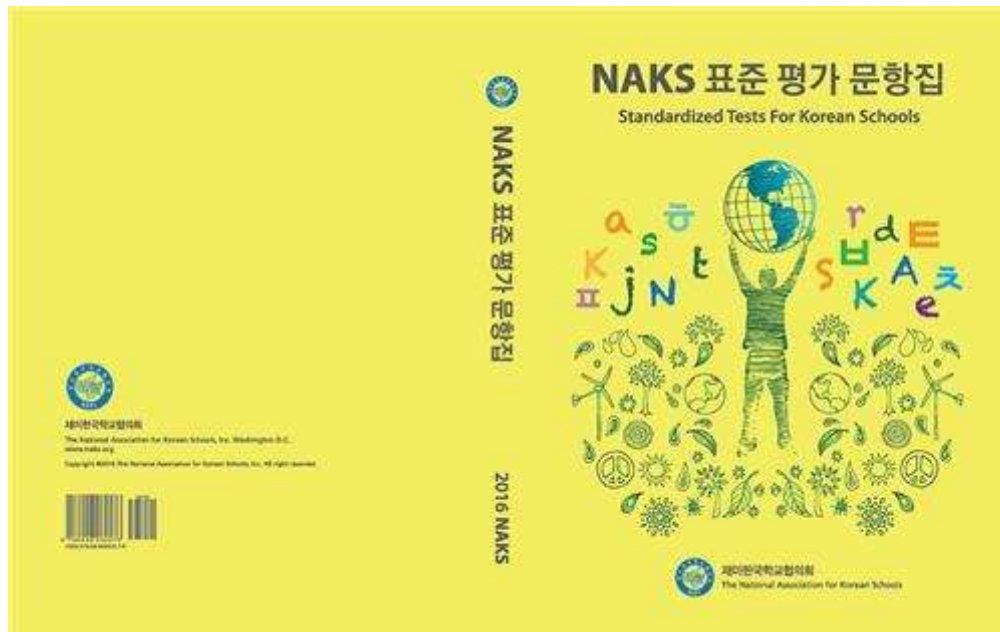
이어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한국학교 간 학습 표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평가집'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재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과 제이스커뮤니케이션즈의 그림 사용 허가를 받아 만들었다.

NAKS는 오는 14~16일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르네상스 덴버 스테플턴 호텔에서 열리는 '제34회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이 문항집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700여 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한국어 교사 집중연수, 한국학교 우수사례 발표, 한국학교 운영자 워크숍, 나의 꿈 말하기대회,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NAKS는 미 전역 14개 지역협의회 산하에 1천200여 개 한국학교를 둔 단체로, 소속 학교에서 3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재미한국학교협회(NAKS)가 자체개발한 '표준평가문항집'.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06 09:52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